

生涯家事勞動價値의 評價模型에 관한 研究

A Study on the Evaluation Model of the Life-Time Household Work

부산대학교 가정관리학과
강사 김선희

Dept. of Home Management, Pusan National Univ.
Lecturer Seon Hee Kim

〈목 차〉

I. 서론	IV. 논의 및 제언
II. 생애가사노동가치 평가모형의 구성조건	참고문헌
III. 생애가사노동의 가치평가를 위한 모형구성	

〈Abstract〉

The aim of this study is to propose the criteria for a evaluation model of the life-time household work and organize the model.

The results were as follows; Three criteria for a evaluation model of the life-time household work were proposed.

① An appropriate framework of the evaluation model should be based on the transition of the family life.

② The model should include major variables influencing the value of household work of homemaker.

③ The model should be flexible enough to accommodate various evaluation methods, and should reflect idiosyncracies of different evaluation methods.

In view of the criteria stated above, the present study is based on the family life cycle framework.

And the age of the last offspring exhibits a consistent major influence in the evaluation based on the household work hours, while the education level of homemakers shows a consistent major influence in the evaluation based on household worker. So as to reflect these two major variables in the family life cycle framework.

I. 序 論

지금까지 國內外에서 행해진 家事勞動의 價値評價에 관한 선행연구의 대부분은 가정환경변인에 따른 集團別 平均家事勞動價値를 평가하는 것이었으며, 여러 가정환경변인을 함께 고려한 個別主婦의 家事勞動價値 評價에 관한 연구는 드문 실정이다. 이 연구 결과들은 가사노동가치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제공하고 가사노동의 가치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主要變因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는 점에서는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그러나 그 가치평가들은 모두 調査時點에 基準을 둔 것이므로 現在 수행하고 있는 가사노동의 가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는 있으나 주부가 結婚 以後 현재까지 계속 수행해 온 生涯家事勞動價値에 대한 情報를 제공해주지는 못한다. 왜냐하면 주부가 수행하는 가사노동은 家庭生活의 經過에 따라, 즉 子女의 出生·養育·成長 등 자녀와 관련된 많은 부분의 變化가 지속적으로 진행되면서 家族員들이 요구하는 家事勞動의 量과 質도 함께 변화하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基準時點에 의한 評價方法은 그러한 가사노동의 변화를 반영할 수 없기 때문이다.

주부가 이미 수행해 온 家事勞動量 및 앞으로 수행할 未來의 家事勞動量을 算出하는 것과 그것에 기초하여 過去 및 未來의 家事勞動價値를 평가하는 것은 研究의 實踐的 目的에 비추어 볼 때 現實的으로 요청되는 主要課題이며 또한 家事勞動價値 評價方法의 理論的 側面에서도 필요한 과제이다. 그러므로 生涯家事勞動의 價値評價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필요하다.

첫째, 平生의 職業으로 가사노동을 수행하는 專業家庭主婦들에게 心理的 安定感을 제공하기 위해서이다. 즉 가사노동에 대한 正當한 價値評價를 통해 그들의 생애동안의 가사노동이 社會·經濟的으로 상당한 價値가 있으며 家計의 財産形成에도 기여하고 있음을 주부자신과 가족 및 사회에 客觀的 評價資料를 통해 인식시킴으로써 가사노동에 대한 滿足感을 높이고 그 重要性을 인식하게 한다. 이것은 家庭의 機能遂行이 가사노동을 통해서 비로소 가능해지며, 나아가 家庭과 社會의 安定的 土臺가 된다는 점을 고

려하면 매우 重要한 問題이다.

둘째, 家事勞動의 歸屬價値와 관련된 法律的인 問題에 필요한 客觀的 資料를 提供함으로써 主婦의 法的·經濟的 地位를 안정되게 하기 위해서이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보면, ① 事故로 인한 主婦의 家事勞動力 喪失이 一時的인 경우는 基準時點에 의한 評價價値를 적용해도 무리가 없다. 그러나 그 喪失이 長期的인 것이거나 永久的인 경우 또는 死亡時에는 基準時點에 의한 評價는 가정생활의 변화에 따른 家事勞動量을 반영하지 못하므로 적용하기에 타당하지 못하다. 따라서 家事勞動能力 喪失에 따른 逸失價値는 生涯家事勞動量에 의해 算定되어야 한다. ② 이때까지 주부는 이혼시에도 재산상의 기여를 입증할 수 없으므로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1991년 1월부터 효력을 발생하는 改正家族法에는 財産分割請求權이 신설되어 있으며, 이것이 실제 효력을 발생하려면 主婦의 가사노동을 통한 재산상의 기여에 대한 立證이 필요하므로 生涯家事勞動價値에 대한 客觀的 資料가 필요하다.

이상과 같이 家事勞動能力 喪失로 인한 主婦와 家庭의 長期的 또는 永久的인 被害報償 및 가사노동의 歸屬價値와 관련된 法律問題에 적용하기 위해서 生涯家事勞動價値를 고려한 評價方法의 開發이 실제문제 적용을 위해서나 평가방법론적 측면에서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시도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먼저 生涯家事勞動價値 評價를 하기 위한 模型構成의 條件을 제시하고 그 조건을 충족시키는 과정을 살펴서 評價模型을 구성하는 것이므로 試論的 性格을 가진다.

1. 生涯家事勞動價値 評價模型의 構成條件

생애가사노동가치의 評價模型 構成의 大前提는 主婦의 生涯家事勞動量이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前提를 충족할 수 있도록 그 構成條件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評價模型의 틀은 家庭生活의 經過에 따른 家事勞動量의 變動을 총괄적으로 내포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둘째, 主婦의 가사노동가치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主要變因이 반드시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

세제, 여러 評價方法의 適用이 가능하며, 각 평가 방법의 特性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이 조건들을 충족시키는 評價模型의 內容을 구성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評價模型의 틀

本 研究에서는 投入에 의한 評價를 家事勞動 時間을 중심으로 하는 평가와 家事勞動 擔當者를 중심으로 하는 평가로 나누어 살펴 보기로 한다.

우선 先行되어야 하는 것은 生涯家事勞動時間을 산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종단적 연구(longitudinal study)에 의한 資料收集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이것은 현실적인 조사의 실행이 어렵다. 그러므로 이것을 현실적으로 가능하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가정생활주기(Family Life Cycle)를 적용한 Cohort 접근을 한다.

먼저, 家庭生活週期는 가정생활에 관한 시계열(time-series)적 변동이나 변화를 파악하는데 가장 적합하기 때문이다. 家庭生活週期는 가정의 형성에서부터 확대 축소에 이르기까지의 가정생활의 경과를 포괄적으로 나타내는 개념이다. 家庭生活은 그 外部構造나 內部構造가 정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家庭生活週期の 段階에 따라 가족내의 인간관계, 역할기대가 다르며 가족의 크기에 의한 경제상태 등 諸般生活構造의 變化가 따르게 되므로(김선희, 1982:4) 各 段階마다 요구되는 家事勞動의 量과 質도 자연히 달라지게 된다. 이와 같이 가정생활주기는 주부의 家庭生活期間과 그 生活內容의 變化를 내포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각 단계에 따른 家事勞動의 量과 質에 대한 情報를 제공해 주게 된다. -정영금(1989), 김선희(1991)의 실증분석에서도 가사노동시간은 가정생활주기에 따라 차이가 있음이 밝혀졌다($P<.001$).

家庭生活週期 外에도 가사노동의 시간과 내용을 복합적으로 내포하면서 時系列的의 性格을 가진 변인으로 結婚期間과 主婦의 年齡을 들 수 있다. 그러나 結婚期間과 主婦의 年齡은 가정생활사의 단면적인 구분이므로 개별주부의 다양한 생활에 따른 가사노동의 차이에 관한 情報를 제공하는데 있어서 가정생

활주기에 미치지 못한다. 가정생활주기는 연구자나 연구목적에 따라 단계구분의 기준을 달리 할 수 있으나(森岡清美, 1978:26) 주부의 가사노동은 가족구성원 중 막내자녀의 출생·성장·교육단계 등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Hall and Schroeder:1970, 안영희:1977, 임정빈:1981, 이정수:1984), 또한 그 개념의 특성상 主婦의 年齡, 子女의 年齡 등 人口學的 變因들에 대한 의미도 함축하고 있기 때문에 막내자녀의 연령에 段階區分의 基準을 둔 家庭生活週期가 더 적절하다. 이상에서 家庭生活週期는 家庭生活의 時系列的 變化를 나타내며, 그 단계에 따른 가족의 家事勞動에 대한 要求가 가장 잘 반영되므로 주부의 생애가사노동시간과 그 가치를 평가하기 위한 모형의 틀로서 가장 적합하다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가정생활주기를 신혼기, 막내자녀 미취학기, 중학교기, 고등학교기, 고졸후 결혼까지의 기간, 막내결혼 후의 기간의 7단계로 구분하여 적용하였다.

다음으로, 生涯家事勞動時間을 算出하기 위해 家庭生活週期를 적용한 Cohort 접근을 하는 것은 專業主婦의 家事勞動時間이 수십년 동안 크게 변화하지 않았다는데 前提를 두고 있다.

家事勞動時間의 變化에 관한 研究結果는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로는, 오늘날의 가사노동은 技術·經濟의 발달로 인해 그 商品化, 機械化가 진전되면서 全般的으로는 그 勞動과 時間이 減少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기는 하지만 그 감소의 폭이 크지는 않다는 결과이다(McCallough:1980, Matsushima:1981, 김선희:1989).

둘째로는,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인하여 生活標準이 높아지게 되고 그 결과 가사노동의 質的 水準向上에 대한 要求와 物資管理의 增大로 인해 보다 긴 家事勞動時間이 要求되고 있다는 입장이다(Walker:1969, Hall & Schroeder:1970, S.Linder:1970, Vanek:1974, V.K.Oppenheimer:1976, J.P.Robinson:1980, R. Schettkat:1985, 한국여성개발원:1986, 이기영:1987 등). 이상의 國內外的 研究에서 밝혀진 것은 일반적으로 身體的 勞動을 요구하는 領域의 家事勞動時間은 減少하지만, 이 감소된 시간을 상쇄시키는 要因들이 出現함으로써 시대변화에도 불구하고 주부의

가사노동시간은 그렇게 크게 변하지 않았으며 계속적으로 一定水準의 가사노동시간을 필요로 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상의 여러 연구결과에 의하면 專業主婦의 家事勞動時間은 時代的變化와 가사노동을 둘러싸고 있는 環境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그 總時間은 별로 변화하지 않으며, 단지 그 內容과 質에 따른 差異가 분명히 나타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점과 막내자녀에 단계구분의 기준을 둔 가정생활 주기가 생활의 경과에 따른 가사노동의 변화를 가장 잘 반영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家庭生活週期를 生涯家事勞動價値 評價模型의 틀로 삼는 데는 이론적 무리가 없다고 생각된다.

2) 家事勞動의 價値評價에 影響을 미치는 主要變因의 選定

생애가사노동가치 평가모형 구성의 두번째 조건으로 주부의 가사노동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主要變因이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개별주부의 가사노동가치를 평가한 선행연구(소연경;1988, 정영금;1989)를 참고하면서 본 연구자의 연구결과(1991)를 토대로 主要變因을 選定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유의적으로 나타난 변인들만을 대상으로 종속변인인 각 평가방법별 가사노동가치에 대한 線形性 檢證을 한 후,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最終으로 選定된 것이다. 그 결과 주부연령, 막내자녀 연령, 자녀수, 주부교육기간, 가계소득, 방 수의 6개 변인이 선정되었고, 평가방법별 개별주부의 가사노동가치에 대해 이들을 일괄투입하여 회귀분석한 결과 첫째, 家事勞動을 中心으로 한 評價(전문직업인 대체법, 종합적 대체법)에서 모두 유의적인 영향을 나타낸 것은 막내자녀 年齡과 子女數였으며 그 標準化된 回歸係數(beta)의 값을 <表 1>에서 보면 子女數 보다 막내자녀 年齡의 값이 약 두배 정도 더 높게 나타났다.

둘째, 家事勞動擔當者를 中心으로 한 評價(기회비용법, 요구임금법, 주관적 평가법)에서 모두 영향을 나타낸 변인은 主婦의 教育期間으로 나타났으며, 家計所得은 기회비용법에서 영향을 나타내지 못하였다. 이것은 기회비용법에 의한 가사노동가치 산출과정의 특성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위의 結果에서 주부의 가사노동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主要變因은 家事勞動時間을 中心으로 한 評價에서는 막내자녀의 年齡으로 選定하였고, 家事勞動擔當者를 中心으로 한 評價에서는 主婦의 教育期間이 세 평가방법에서 모두 유의적으로 나타났을 뿐만

<表 1> 評價方法別 主要變因의 標準化된 回歸係數(beta)

구분 변인	가사노동시간중심 평가			구분 변인	가사노동담당자중심 평가		
	a	b	c		d	e	f
자녀수	.1474**	.1448*	.1382*	가계소득	.0522	.2285***	.2142***
막내연령	-.2919***	-.2374**	-.2708**	주부교육기간	.6391***	.2190***	.1301*

* P<.05 ** P<.01 *** P<.001

주) a: 전문직업인 대체법 d: 기회비용법
 b: 종합적 대체법(가정부) e: 요구임금법
 c: 종합적 대체법(가정부·관리자) f: 주관적 평가법

출처: 김선희,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평가에 관한 연구 - 전업주부를 중심으로 -,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 학위논문, 1991 참조.

가사노동과 관련한 實際問題의 적용에는 항상 個別主婦의 家事勞動價値가 문제가 되므로 回歸分析 結果에서 영향을 나타낸 변인 중에서 主要變因을 선정한다. 회귀분석에 들어간 변인들은 分散分析에서

1) 종속변인인 평가방법별(전문직업인 대체법, 종합적 대체법, 기회비용법, 요구임금법, 주관적 평가법)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의 추정방법에 대해서는 김선희(1991) pp. 75~82 참조.

아니라 소득보다 더 안정적이므로 主要變因으로 選定하였다.

이러한 變因選定에 대해 선행연구의 결과와 비교 검토해 보면, 먼저 가사노동시간을 중심으로 한 평가에는 정영금(1989)의 연구에서 가족형태와 막내연령이 主要變因으로 나타났으며, 막내연령이 가족형태보다 세배이상 더 큰 설명력을 나타내었다. 다음으로 가사노동 담당자를 중심으로 한 평가에서는 정영금(1989)의 연구에서 주부의 교육기간은 기회비용법과 주관적 평가법에서, 그리고 소득은 요구임금법과 주관적 평가법에서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요구임금 결정요인에 관한 소연경(1988)의 연구에서는 주부의 교육수준이 가장 중요한 변인임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막내연령과 주부의 교육기간, 이 두 변인의 선정은 선행연구에 의해 지지된다고 할 수 있다.

이상에서 주부의 生涯家事勞動價値 評價模型은 家庭生活週期の 틀에 家事勞動時間을 중심으로 한 평가모형에는 막내자녀의 年齡이, 그리고 家事勞動擔當者를 중심으로 한 평가모형에는 主婦의 教育水準이 각각 반영되도록 구성되어야 함이 밝혀졌다. 또 한 이 두 변인은 各 評價方法에서 모두 영향을 나타냄으로써 該當 評價方法에 각각 適用할 수 있음도 함께 밝혀진 셈이므로 評價模型 構成의 세번째 條件도 아울러 충족시킨다고 할 수 있다.

2. 生涯家事勞動의 價値評價를 위한 模型의 構成

주부의 생애가사노동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서 첫째, 評價模型의 틀로는 家庭生活週期가 자녀와 관련된 생활의 변화를 총체적으로 포괄하기 때문에 가장 적합하다는 점과 둘째, 개별주부의 가사노동의 가치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主要變因이 家事勞動時間을 중심으로 한 評價에서는 막내자녀의 年齡이, 그리고 家事勞動擔當者를 중심으로 한 評價에서는 主婦의 教育水準이 선정되었다는 이 두가지 점을 결합하면 生涯家事勞動價値를 評價하기 위한 模型을 다음과 같이 구성할 수 있다.

1) 家事勞動時間을 中心으로 한 評價模型

막내자녀의 연령을 단계구분의 기준으로 한 家庭生活週期の 틀에 各 段階別 주부의 家事勞動價値를 적용시킬 수 있도록 評價模型을 구성하면 다음과 같다.

$$THWT \cdot W = F_{1t} \cdot w \cdot x_1 + F_{2t} \cdot w [7 + (fag - lag)] + 6F_{3t} \cdot w + 3(F_{4t} + F_{5t})w + F_{6t} \cdot w \cdot x_2 + F_{7t} \cdot w \cdot x_3$$

THWT W: 주부의 생애가사노동가치

fag: 첫자녀 연령

lag: 막내자녀 연령

F_{1t} · w: 신혼기의 가사노동가치

F_{2t} · w: 미취학기의 가사노동가치

F_{3t} · w: 국민학교기의 가사노동가치

F_{4t} · w: 중학교기의 가사노동가치

F_{5t} · w: 고등학교기의 가사노동가치

F_{6t} · w: 고졸후 결혼까지의 가사노동가치

F_{7t} · w: 결혼후의 가사노동가치

THWT: 주부의 생애가사노동시간

x₁: 신혼기간 (결혼-첫자녀 출산)

x₂: 막내자녀 고졸후 결혼까지의 기간

x₃: 막내자녀 결혼 후의 기간

조건) 단 [7+(fag-lag)] 項은 첫자녀와 막내자녀의 연령 및 그 터울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값이 달라진다.

- ① [7+(fag-lag)] 項은 lag > 7이면서 (fag-lag) < 7인 경우임
- ② lag > 7 이면서 (fag-lag) > 7 이면 그 값은 14가 적용됨.
- ③ fag < 7 이면 fag의 값이 적용됨
- ④ 한자녀의 경우는 (fag-lag)의 값이 0이 적용됨

위의 式에다 가정생활주기 단계별 가사노동가치를 각 평가방법별로 적용하면 個別主婦의 生涯家事勞動價値를 각 방법별로 산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결혼한지 2년만에(xi=2) 낳은 첫자녀가 현재 중학교 2학년에 재학중이고(fag=15), 막내자녀가 국민학교 5학년인(lag=12) 주부A의 생애가사노동가치를 <表 2>를 참고하여 총합적 대체법 중 가정부대체에 의해 산출해 보면

〈表 2〉 家庭生活週期別 評價方法別 家事勞動의 價値
(단위: 원 / 월)

FLC	평가방법	전문직업인 대체법	총합적 대체법	
			가정부	가정부·관리자
1. 신혼기		303,647	365,850	414,857
2. 미취학기		510,059	506,531	653,804
3. 국민학교기		339,672	396,169	461,412
4. 중학교기		296,155	364,527	411,567
5. 고등학교기		305,627	373,104	425,100
6. 대학·취업기		293,781	363,404	413,100
평 균		346,105	399,250	469,232
F		31.82***	16.84***	24.40***

*** P<.001

출처: 김선희,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평가에 관한 연구 - 전업주부를 중심으로 -,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 학위논문, 1991, p.147.

$THWT \cdot W = 2 \cdot 365,850 + 506,531 \cdot (7+3) + 5 \cdot 396,169$ 이 되며 이 값에다 12개월을 곱하면 주부 A의 생애가사노동가치가 된다.

2) 家事勞動 擔當者를 中心으로 한 評價模型

家庭生活週期の 틀에 주부의 教育水準別 家事勞動 價値를 적용시키면 해당주부의 生涯家事勞動 價値를 산출 할 수 있도록 구성한 評價模型은 다음과 같다.

$$THWT \cdot W \cdot E = F_{1t} \cdot w \cdot e \cdot x_1 + F_{2t} \cdot w \cdot e [7 + (fag - lag)] + 6F_{3t} \cdot w \cdot e + 3(F_{4t} + F_{5t})w \cdot e + F_{6t} \cdot w \cdot e \cdot x_2 + F_{7t} \cdot w \cdot e \cdot x_3$$

$THWT \cdot W \cdot E$: 주부의 教育수준을 고려한 생애가사노동가치

e : 주부의 教育수준

기타 변인 및 조건: 식 $THWT \cdot W$ 의 변인 및 조건과 동일함

위의 식에 家庭生活週期 段階에 따라 주부의 教育水準에 해당하는 값을 적용시키면 家事勞動 擔當者를 中心으로 하는 各 評價方法別 個別主婦의 生涯家事勞動 價値가 산출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주부의 教育水準別 家庭生活週期에 따른 要求賃金法에 의한 家事勞動 價値의 값을 〈表 3〉에서 찾아 위의 식에 적용시키면 이 방법에 의한 주부의 生涯家事勞動 價値가 算出된다.

즉, 고졸의 학력을 가진 주부B가 결혼한지 2년 ($F_{1t}=2$)만에 현재 18세 ($fag=18$)인 첫자녀를 낳았고, 첫자녀와 막내의 터울이 3살 ($fag-lag=3$)이며, 막내가 현재 중학교 2학년에 재학중 ($lag=15$ 세)인 경우는 다음과 같이 적용 산출된다.

$THWT \cdot W \cdot E = (280,000 \cdot 2 + 289,655(7+3) + 6 \cdot 339,178 + 2 \cdot 424,792)$ 이 되며 이 값에다 12개월을 곱하면 주부B의 요구임금법에 의한 생애가사노동가치가 산출될 수 있다.

IV. 論 議

이상에서 個別主婦의 生涯家事勞動 價値를 평가하기 위한 模型을 일련의 과정을 거쳐 家事勞動時間을 中心으로 한 評價와 家事勞動 擔當者를 中心으로 한

〈表 3〉 主婦의 教育水準別 要求賃金法에 의한 家事勞動 價値

(요구임금법에 의한 가치, 단위: 원 / 월)

FLC 教育수준	국졸이하	중 졸	고 졸	대졸이상	평균
1. 신혼기			280,000	356,250	313,889
2. 미취학기	250,000	225,000	289,655	407,273	313,034
3. 국민학교기	270,000	305,714	339,178	448,182	332,574
4. 중학교기	313,000	320,286	424,792	430,714	380,935
5. 고등학교기	326,471	320,000	321,951	475,000	325,495
6. 대학·취업	290,000	262,500	388,095	560,007	362,162

P < .001

출처: 김선희,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평가에 관한 연구 - 전업주부를 중심으로 -,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 학위논문, 1991.

評價로 나누어 구성하였다. 이것은 實際的으로는 주부의 가사노동의 歸屬價値 處理와 관련한 法律的인 問題와 주부의 家事勞動力 喪失에 따른 逸失價値와 관련한 問題의 處理에 필요한 情報을 提供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것은 家事勞動價値의 評價方法論에서는 生涯家事勞動價値에 대한 새로운 評價模型을 提示하였다는 점에서 意義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生涯家事勞動의 價値評價에 관한 先行研究가 없기 때문에 본 연구자가 模型構成의 條件을 제시하고, 그 條件을 충족시키는 과정을 거쳐서 生涯家事勞動價値의 評價模型을 구성하였다. 따라서 試論的 性格을 가지고 있으므로 앞으로 많은 檢證과 問題提起에 의해 세련되기를 기대한다.

그리고 본 평가모형의 적용을 예시하기 위해 참고한 <表 2>와 <表 3>의 자료는 부산지역 전업주부의 것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생애가사노동가치는 종단적 자료에 의해 평가되어야 하나 현실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cohort 접근을 통해 모형구성을 하였으므로 주부의 실제적인 생애가사노동가치와는 어느정도 오차가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家事勞動의 價値를 評價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家事勞動의 經濟的 部門에 制限된 것이므로 家事勞動의 基本性格인 노동력의 재생산, 생활문화의 유지, 전승, 창조 등의 시장가치 이상의 가치를 나타낼 수는 없으므로 어떤 점에서는 가사노동에 대해 算出可能한 最小限의 價値評價라고 할 수 있다.

【참 고 문 헌】

- 1) 김선희, "도시가족의 생활주기 및 그 변화에 관한 일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2, p. 4.
- 2) 김선희, "도시 가정주부의 가사노동시간 변화와 구조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제27권 1호, 1989, pp. 111~126.
- 3) 김선희,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평가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제28권 2호, 1990, pp. 73~89.
- 4) 김선희,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평가에 관한 연구", — 전업주부를 중심으로 —,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1.
- 5) 소연경, "주부의 요구임금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88.
- 6) 안영희, "주부의 생활시간구조에 관한 조사연구", 경상대 논문집, 제16권 제2호, 1977, pp. 25~26.
- 7) 이정수, "가족의 가사노동시간과 생활의 질 인식과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제22권 2호, 1984, p. 118.
- 8) 임정빈, "도시주부의 생활시간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제19권 2호, 1981, p. 82.
- 9) 이기영, "가사노동의 상품대체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987.
- 10) 정영금, "가정노동의 가치평가를 위한 방법론적 모색",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89.
- 11) 한국여성개발원, 「여성의 취업실태조사」— 기혼 여성을 중심으로 —, 1986, p. 139.
- 12) 森岡清美, 「家族週期論」, (東京:培風館, 1978), p. 28.
- 13) Hall F.T., and M.P.Schroeder, "Time Spent on Household Task", J.Home Economics, 62-11, 1970, pp. 23~29.
- 14) Linder S., The Harried Leisure Class, (New York:, Columbia Univ.Press, 1970).
- 15) Matsushima, C., "Time-Input and Household work-output Studies in Japan:Present State and Future Prospects," J. of Consumer Studies and Home Economics 5, 1981, pp. 199~217.
- 16) McCallough, J., "Preliminary Findings from the Interstate Urban/Rural Comparison of Families Time Use, 「The Household Producer:A Look Beyond the Market」, Mass, AHEA, 1980, pp. 109~118.
- 17) Oppenhemier V.K., The Female Labor Force in the United States; Demographic and Economic Factor Governing Its Growth and Changing Compostion, 2nd ed., Wesport.(Connecticut: Green Wood Press, Inc., 1976), p. 39.
- 18) Robinson J.P., "Housework Technology and

- Household Work", Women and Household Labor, ed., S.F. Berk, (Beverly Hills, Califor: Sage Publications, 1980), p. 64.
- 19) Schettkat R., "The Size of Household Production: Methological Problem and Estimates for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in the period 1964 To 1980", Review of Income and Wealth, 31-3, 1985, p. 312.
- 20) Walker Kathryn, "Homemaking Still Takes Time", J. Home Economics.61, 1969, p. 621.